

2022.12.08(목)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2-12-08 오전 3:24

수정한 날짜: 2022-12-08 오전 3:24

2022.12.08(목) 증권사리포트

크라프톤

평가는 기록으로 남는 법

[\[출처\] 키움증권 김진구 애널리스트](#)

칼리스트도 프로토콜 출시 이후 종합 판단

동 게임은 근접전 중심 고유 타격감과 회피와 충기를 활용한 연계기 활용으로 초반 플레이 구간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유저 피드백을 이끌어냈으나 중후반 플레이 구간에서 이에 대한 반복적 패턴과 일대다 전투 구간의 근접전 효율성 저하 및 그립 업그레이드를 통한 전투 밸런스 문제 등이 부각되며 유저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한 생존 컨셉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나 공포라는 장르적 특성을 부각시키기에는 스팀 배턴을 활용해 적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공포라는 키워드를 소화하지 못한 소위 액션 게임으로서의 특징이 부각된 게임으로 회자된다. 회피의 경우도 자동 옵션을 통해 쉬운 구간을 만들었지만 무적급 회피가 가능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공포의 느낌을 가지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고어한 장르에서 근접 방식 타격감을 선호하는 로열 유저 중심으로 팬층을 형성했다고 보여지나 공포라는 장르에서 보다 새로운 게임성으로 유저 확장을 가져오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총평한다. 이에 대중적 관점의 트리플 A급 게임으로 포지셔닝 역시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적화 문제에 대한 복기가 필요할 것

칼리스트도 프로토콜을 출시 이후 PC 버전을 중심으로 최적화 문제가 너무 크게 발생하였다. 출시 이후 개발사 패치를 통해 스팀 기준 유저 평점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최적화 문제는 진행 중이며 게임성과 맞물려 안정적 범위내의 긍정적 피드백 확보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 최적화 문제는 게임성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출시한 것은 개발사 레퍼런스에 부정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비평가 평점을 차기하더라도 유저 평점에서 낮은 기록은 결국 유저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다. 이에 해당 IP 기준으로 후속 차기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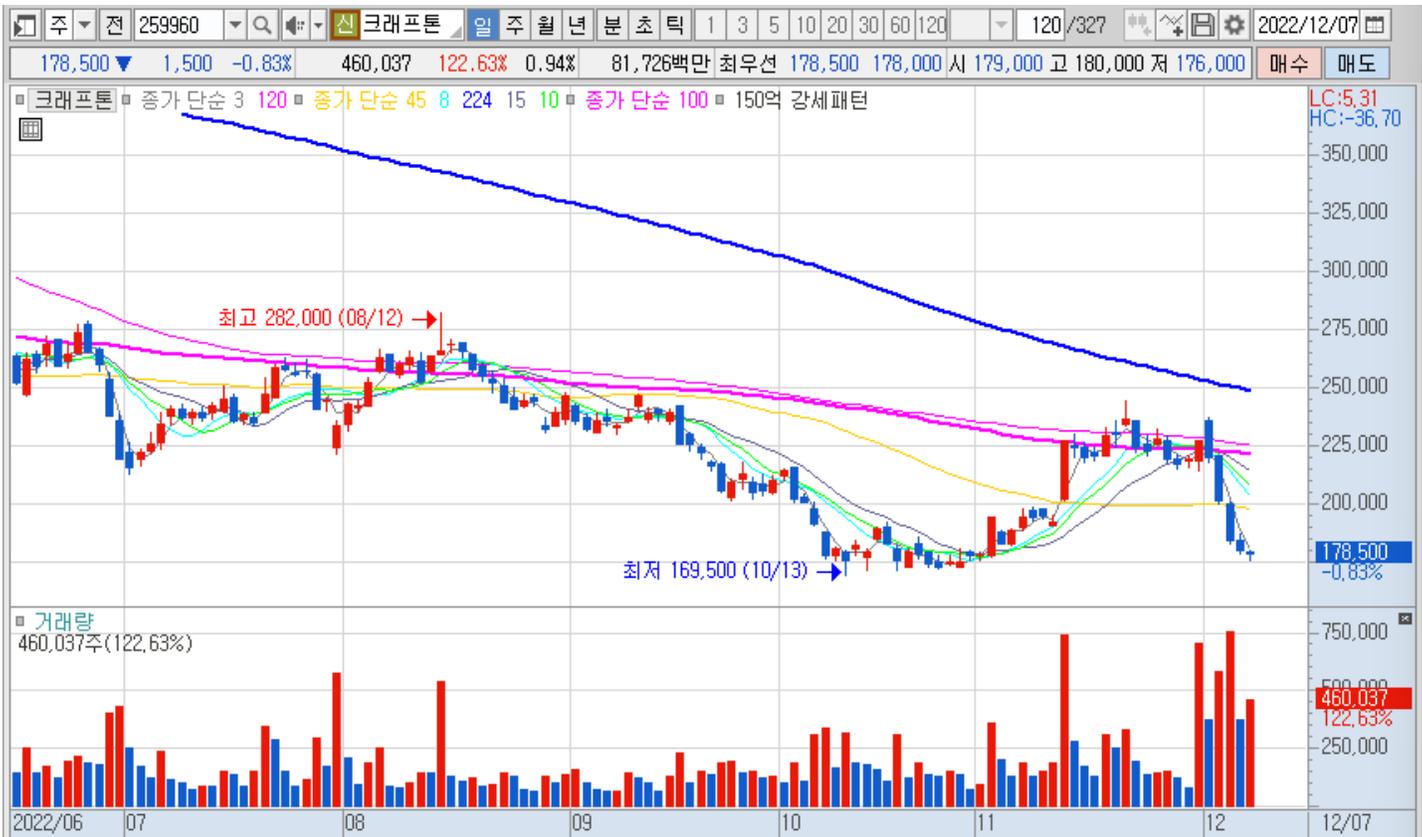
상승여력 감안시 매수 관점은 지속 유지

칼리스트도 프로토콜 초기 분기 판매 105만장과 이후 4년간 판매를 포함한 누적 판매고를 350만장으로 조정하고 IP 레퍼런스 약화를 반영해 23E 타겟 PER을 기존 25배에서 22.5배로 재차 조정한다. 또한 중국 리오프닝 가능성 확대에 따른 화평정영 매출 감소 여지를 추가 반영해 어닝을 조정한 결과,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1,670.4	1,886.3	1,861.7	1,774.4
영업이익	773.9	639.6	755.4	498.6
EBITDA	818.0	707.2	829.8	583.6
세전이익	666.8	750.4	1,095.2	741.5
순이익	556.3	519.9	812.0	547.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56.3	519.9	812.0	547.5
EPS(원)	13,710	11,442	16,550	11,157
증감률(% YoY)	90.5	-16.5	44.6	-32.6
PER(배)	0.0	40.2	10.9	16.1
PBR(배)	0.00	4.89	1.62	1.47
EV/EBITDA(배)		28.0	6.7	8.9
영업이익률(%)	46.3	33.9	40.6	28.1
ROE(%)	61.9	17.9	16.2	9.6
순차입금비율(%)	-56.6	-58.4	-60.6	-61.1





컴퍼니케이
보릿고개 건디기
[\[출처\] NH투자증권 유투동 애널리스트](#)

중요한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펀딩

컴퍼니케이는 비상장 시장 조정에 대응해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 선택. 본래 동사 투자 중 초기 비중은 40%에 달했는데 이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파악. 투자 섹터 비중은 ICT 60%, 바이오 40% 유지. 내년엔 약 800억원 규모 펀딩을 완료할 전망이다 그 경우 운용 AUM은 8,700억원 달성 예정

펀드의 규모보다 결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시기. 과거 VC의 단일 펀드 규모는 1천억원을 상회하였지만 조달금리 상승으로 자금 집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중. 올해 업계 누적 신규 펀딩 규모는 7.1조원(+38.3% y-y)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기존에 결정된 정부예산 소진에 기인. 중기부에서 집행한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40% 이상 급감

2023년, 상장 이연 종목들의 IPO를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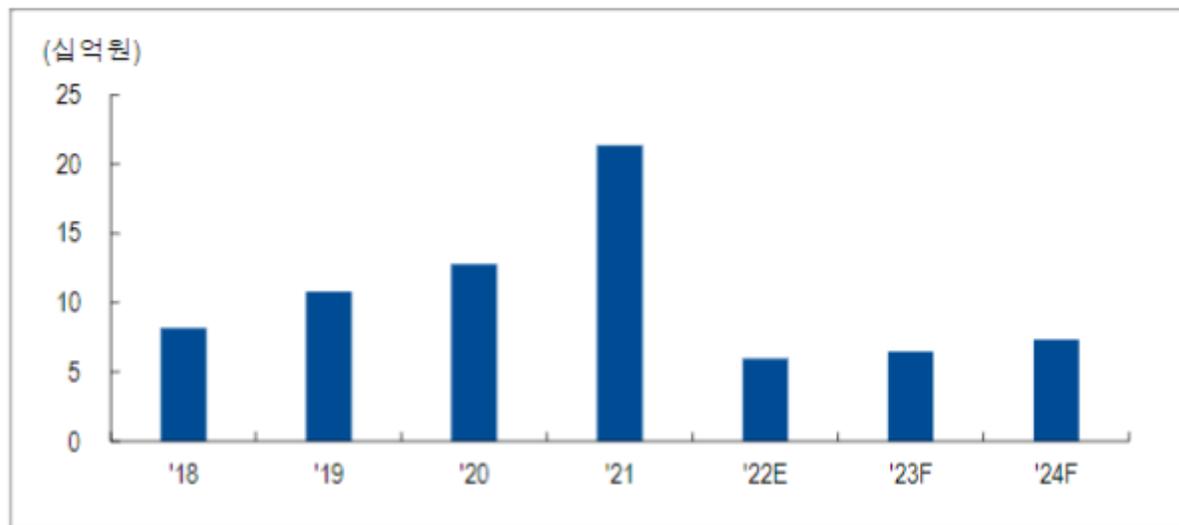
2022E 당기순이익 53억원(-72.3% y-y) 전망. 올해 회수 예정 펀드 부재, 상장/비상장 주식의 평가가치 하락으로 인해 지분법 및 처분손익도 1.4억원으로 하락 전망. 다만, AUM 확대에 따라 연간 관리보수가 121억원(+41.1% y-y)으로 확대되며 감소폭 일부 상쇄할 것

2023F 당기순이익 57억원(+8.6% y-y) 전망. 관리보수 125억원으로 안정적인 흐름 유지, 지분법 및 처분손익은 43억원으로 상승 가능. 파로스아이바이오, 큐로셀, 피노바이오, 버즈빌, 와이브레인 등이 상장 기대 종목이며 이중 일부의 IPO를 통한 처분손익 확대 기대

	2021	2022E	2023F	2024F
순영업수익	26.3	11.3	11.9	12.9
판권비	4.9	5.3	5.4	5.6
영업이익	21.3	6.0	6.5	7.3
세전이익	21.3	5.8	6.3	7.1
당기순이익	19.0	5.3	5.7	6.5
증감률	92.7	-72.3	8.6	13.4
EPS	1,218	338	367	416
PER	6.5	17.5	16.1	14.2
PBR	1.7	1.2	1.2	1.1
ROE	28.6	7.0	7.3	7.9
ROA	25.4	6.2	6.6	7.3
DPS	250	100	100	120
배당성향	20.5	29.6	27.2	28.8

단위: 십억원, %, 원, 배

컴퍼니케이 영업이익 전망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한글과컴퓨터

구독서비스 시작, 유저 모집이 관건

[\[출처\] 키움증권 김학준 애널리스트](#)

올해 SaaS베이스의 오피스 서비스로 변화를 모색

9월 한컴독스 오픈. 한컴독스는 웹오피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로 B2C 영역으로 사업이 진행 중(월 6,900원). B2G는 웹오피스를 중심으로 공급 전환될 예정 이외 한컴사인을 출시하여 전자서명(HWP, PDF에 서명하는 툴)부문도 일부 진출
기존 온프레미스 시장에서 클라우드로 서비스 전환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내년 상반기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충격이 덜한 B2C부문부터 진행되기는 하지만 무료 서비스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유의미한 매출 발생은 없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한컴독스의 서비스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저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한컴라이프케어는 기존 마스크 관련 사업을 전환하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으나 내년 방산 관련 매출 확대에 일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12월 한컴타자의 리뉴얼 출시 예정

기존 한컴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서비스는 한컴타자로 한컴타자 내 문제풀이 및 단어를 통한 게임 등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유저 호응도가 높았던 서비스

12월에 한컴타자 리뉴얼 버전을 출시할 예정으로 관련된 유저 유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초기 무료 버전 이후 서비스 내 유저 확보에 따라 BM 확장, 한컴 서비스 연계 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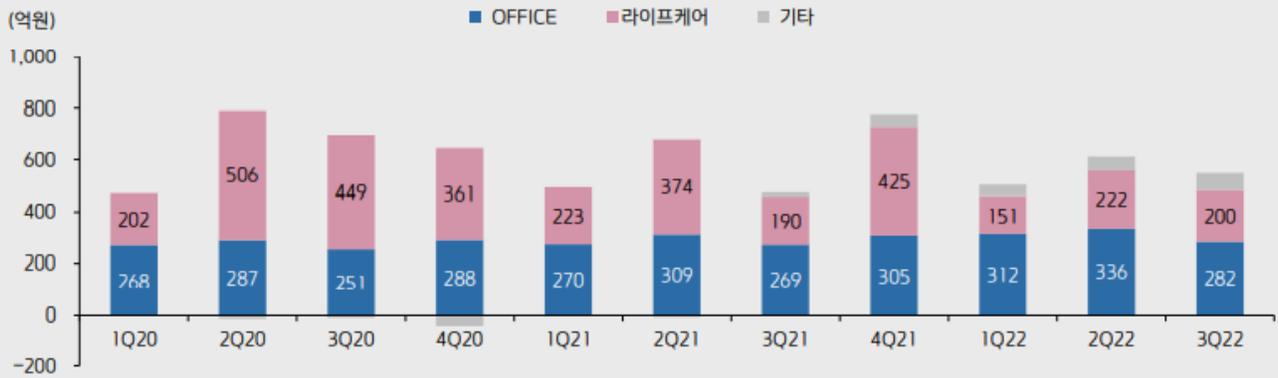
내년 실적은 오피스 부문의 매출 확대(B2G 웹오피스 및 B2B 중심의 순증), 군 방산 신규 서비스 실적 기여 등이 기대됨에 따라 매출액 2,806억원(YoY, +21.8%), 영업이익 407억원(YoY +45.7%)로 전망

투자의견 BUY유지, 목표주가 2023년 예상 EPS에 Target PER 18배 적용함에 따라 21,000원으로 하향 조정

투자지표, IFRS 별도	2020	2021	2022E	2023E	2024E
매출액(십억원)	401.4	391.7	230.4	280.6	303.7
핵심영업이익(십억원)	68.2	43.3	28.0	40.7	53.2
세전이익(십억원)	59.7	20.0	43.5	37.7	50.5
순이익(십억원)	46.6	4.4	70.9	29.1	38.9
지배주주지분순이익(십억원)	37.1	18.0	70.9	29.1	38.9
EPS(원)	1,515	723	2,814	1,153	1,544
증감율(%YoY)	85.2	-52.3	289.5	-59.0	33.9
PER(배)	12.4	36.7	4.8	11.8	8.8
핵심영업이익률(%)	17.0	11.1	12.2	14.5	17.5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글과컴퓨터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한글과컴퓨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아비코전자

DDR5 수혜로 추가 성장 가능

[\[출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수동 전자 부품 전문 업체

동사는 저항기와 인덕터 등 다양한 IT부품에 적용되는 수동 전자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

PCB 전문 업체 아비코테크가 100% 자회사. 3Q22 기준 전장향 비중이 73%

최근 반도체패키징 임가공 신규 사업 시작으로 적자 기초 탈피 및 수익성 증대

23년, 수익성 개선 및 고객사 내 점유율 상승 통한 성장

4Q22 매출액 376억원(YoY -2%), 영업이익 23억원(YoY 흑전) 전망

3분기에 이어 전방 산업 부진으로 수동 소자 부문 및 반도체패키징 임가공 매출 감소

다만, 시그널인덕터의 수익성 개선(베트남법인 생산 확대) 및 수동 소자 부품의 고객사 내 점유율 상승 지속으로 불확실한 전방 산업에도 23년 성장 전망

DDR5가 이끄는 중장기 성장 주목

DDR5 D램을 지원하는 차세대 서버용 CPU 출시 본격화에 따라 동사의 메탈 파워 인덕터 성장 기대
 RAM 모듈 내 전원 관리 반도체(PMIC) 추가로 신규 부품이 탑재되는 구조. 내년 상반기 관련 매출 발생 전망
 22년 영업이익 145억원(YoY 375%), 23년 영업이익 215억원(YoY 48%)을 전망

IFRS 연결(십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123.3	124.1	147.7	167.0	198.5
영업이익	-2.3	-1.9	3.1	14.5	21.5
EBITDA	3.7	3.1	7.0	19.3	26.4
세전이익	-1.4	-1.0	5.8	17.3	24.4
순이익	-5.1	-2.7	3.7	14.8	20.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1	-2.7	3.7	14.8	20.8
EPS(원)	-381	-201	279	1,112	1,567
증감률(% YoY)	적전	적지	흑전	298.9	40.9
PER(배)	-13.7	-42.8	44.1	10.1	7.2
PBR(배)	0.68	1.14	1.55	1.27	1.07
EV/EBITDA(배)	6.7	21.3	16.1	4.8	3.3
영업이익률(%)	-1.9	-1.5	2.1	8.7	10.8
ROE(%)	-4.8	-2.6	3.6	13.0	15.6
순차입금비율(%)	-43.8	-48.4	-47.9	-51.9	-48.1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코넥

메타 소니 닌텐도 삼성 모두의 XR 파트너

[\[출처\] 하나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XR 콘텐츠 대장주

스코넥은 2002년 설립된 메타버스 VR게임 개발 업체로 202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동사는 설립 초기 일본 콘솔 시장 진출을 위한 게임 개발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며 다수의 아케이드 및 콘솔 게임을 개발하였다. 2012년 VR게임 개발 사업에 집중하며 2015년 삼성기어VR 내 VR게임을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다. 2017년 소니 PSVR에 자사 게임인 '모탈블리츠'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국내 최초 글로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스코넥은 1) 국내 최초 FPS 건슈팅 VR게임을 상용화한 업체로 향후 글로벌 빅테크 XR기기 출시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되며, 2) 내년 신규 게임 출시의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으로, 3) 최근 글로벌 기업인 메타와의 VR게임 공동개발 계약에 따라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어, 지금 주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메타와 함께 XR 사업 본격화

지난 12월 5일, 스코넥은 글로벌 기업 메타와의 VR게임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아 VR FPS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Strike Rush'라는 게임명으로 대전형 VR FPS 장르로 파악된다. 특히 VR FPS는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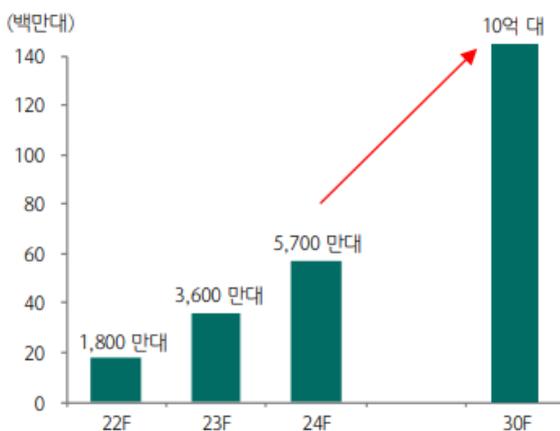
면 디스플레이가 아닌 360도 각도로 게임을 구현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8월 기준 오쿨러스 퀘스트 2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수는 약 200개를 상회하는 정도인데, 퍼블리싱이 매우 선별적인 만큼 본 공시를 통한 동사의 개발 능력이 입증되었다는 판단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오쿨러스의 글로벌 점유율은 약 70% 수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코넥은 메타와의 공급 레퍼런스를 통해 향후 소니, 닌텐도 등 다른 플랫폼으로도 출시가 가능한 만큼 VR게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VR 게임 및 콘텐츠 매출 본격화 기대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은 프로젝트성 XR교육 및 훈련 사업 매출 인식이 지연되며 매출액 25억원(-29.5%, YoY), 영업적자 -34억원(적지, YoY)을 기록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신규 게임인 방탈출 VR 게임 출시에 따라 VR 게임 사업의 본격 성장이 전망된다. 현재 오쿨러스 퀘스트 2는 약 1,500만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3% 침투율을 가정 시 약 100억원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의 대표 VR 게임인 비트세이버의 경우, 연간 약 1,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스코넥은 2024년 1분기 메타와 공동 개발된 신규 게임 'Strike Rush' 출시를 목표로, 메타 플랫폼 뿐 아니라 소니, 닌텐도 등 타 플랫폼 홀더 향으로도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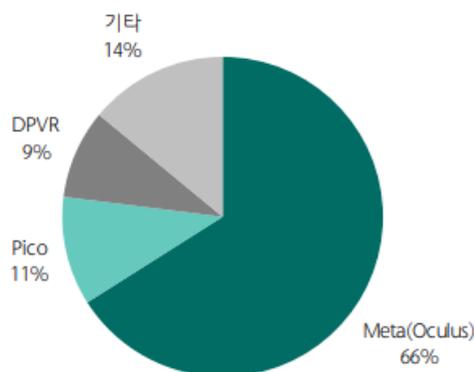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십억원	0	0	8	5	6
영업이익	십억원	0	0	(6)	(6)	(3)
세전이익	십억원	0	0	(10)	(9)	(4)
순이익	십억원	0	0	(10)	(9)	(4)
EPS	원	0	0	(1,045)	(945)	(360)
증감율	%	N/A	N/A	N/A	적지	적지
PER	배	0.0	0.0	0.0	0.0	0.0
PBR	배	0.0	0.0	0.0	0.0	0.0
EV/EBITDA	배	0.0	0.0	0.0	0.0	0.0
ROE	%	0.0	0.0	44.2	497.1	2,309.0
BPS	원	0	0	(2,361)	(183)	(16)
DPS	원	0	0	0	0	0

그림 3.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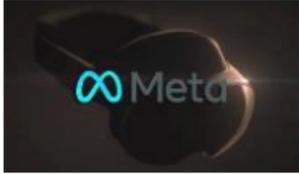
자료: 카운터포인트, 하나증권

그림 4. 글로벌 XR 헤드셋 점유율



자료: 카운터포인트, 하나증권

표 2. 글로벌 빅테크 XR기기

	메타 퀘스트 3	피코 4	Playstation VR 2	Apple VR
사진				
기업	메타	피코	소니	애플
출시일	2023년 하반기	2022년 10월	2023년 1분기	2023년 하반기

자료: 보도자료, 하나증권





하나기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장비 공급 실적 보유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현재 주가는 2023년 기준 PER 12.7배수준

현재 주가는 2023년 예상실적 기준 PER 12.7배 수준이며, 국내 유사업체(피엔티, 티에스아이, 코원테크, 에이프로, 이노메트리) 평균 PER 13.7배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거래 중.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3사를 고객으로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고객 수준의 본격적인 확대와 함께, 전방시장의 다변화에 통한 ESS 시장 진출에 성공함. 이를 통한 근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주가는 상승 여력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2차전지 쏠타입, 쏠공정 턴키 공급 유일 기업

2000년 6월 하나이엔지 설립. 2002년 삼성SDI,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2003년 3월 하나기술 법인 전환. 2004년 LG화학 협력업체 등록. BYD 협력업체 등록. 2017년 LG전자, 소니 및 MURATA 협력업체 등록. 2019년 SK이노베이션 협력업체 등록.

투자포인트

- 1)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장비 실적 성장 기대: 폐배터리 사업도 한국환경관리공단 및 에너르마(GS건설 자회사)에 공급 실적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 수혜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함. 동사는 폐배터리 성능 검사 장비 및 완전 방전 장비 등을 개발하여 공급 중임.
- 2) 2차전지 전방시장 수주 확대 수혜: 올해 3분기 말 수주잔액 1,865억원 확보한 가운데, 연말에 2~3개의 추가 수주가 예상됨. 또한 내년 초에 프레이어항 조립과 화성 장비의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이외에도 국내 3사는 물론 해외 고객의 추가 수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3) 신사업 지속 추진으로 사업 다각화 지속: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을 추진 중임. UTG(Ultra-Thin Glass) 장비 사업은 상용화 시점을 2023년 하반기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빠른 시점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제조에 공급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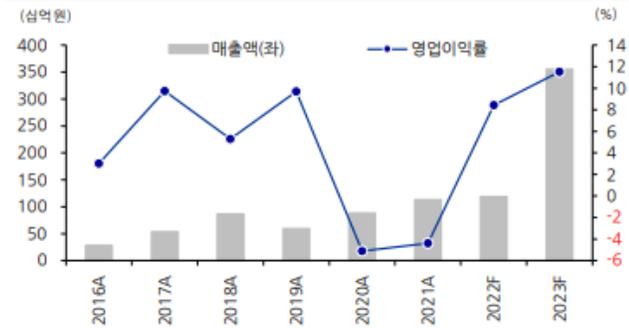
4Q22 Preview

올해는 수익성 회복에 만족, 2023년에는 큰 폭의 실적 성장 기대: 당사 추정 올해 4분기 예상실적(연결기준)은 매출액 505억원,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11.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하며 크게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실적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는 지난 3분기 말 수주액 1,865억원의 매출 반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결산기(12월)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매출액(십억원)	88.0	113.0	119.1	354.9	444.6
영업이익(십억원)	(4.5)	(5.0)	10.0	40.9	54.5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32.3)	(3.9)	10.0	40.1	53.4
당기순이익(십억원)	(30.5)	(2.9)	11.1	37.6	48.4
EPS(원)	(4,187)	(384)	1,483	5,014	6,424
증감률(%)	적전	적지	흑전	238.0	28.1
PER(배)	-	-	43.0	12.7	9.9
ROE(%)	(87.4)	(4.7)	15.8	41.2	35.9
PBR(배)	5.0	5.6	6.6	4.3	3.0
EV/EBITDA(배)	-	-	45.3	9.9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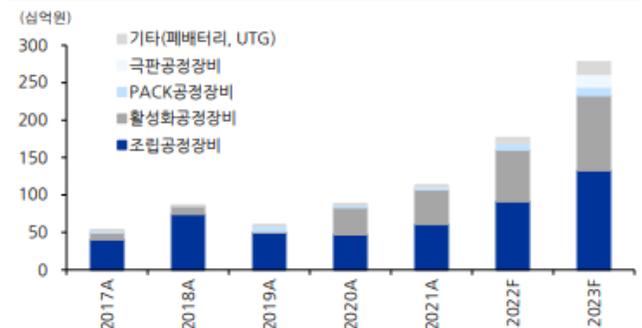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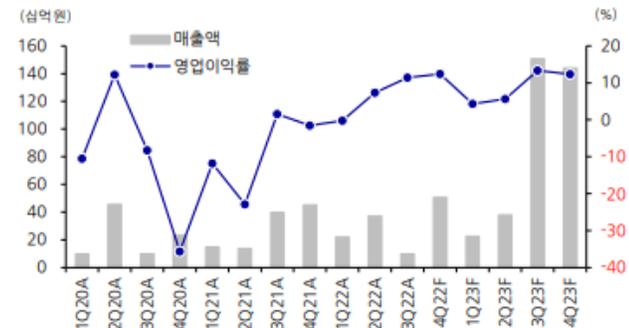
자료: 하나기술, 유진투자증권

연간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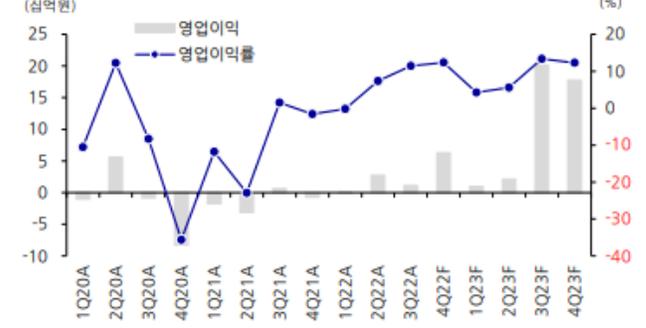
자료: 하나기술, 유진투자증권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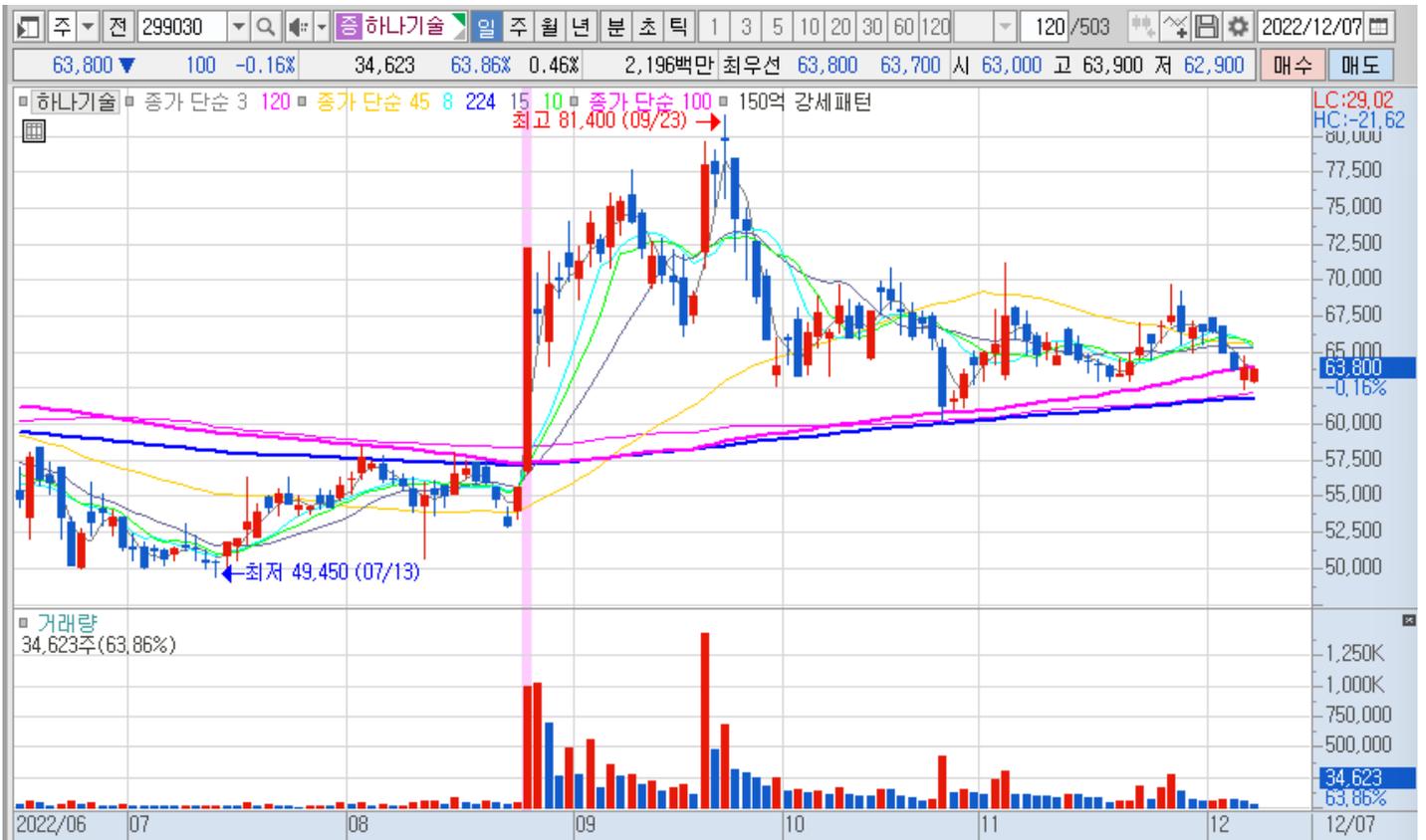
자료: 하나기술, 유진투자증권

분기별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하나기술, 유진투자증권





유일에너지테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수혜 기대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현재 주가는 2023년 기준 PER 30.1배 수준

현재 주가는 2023년 예상실적 기준 PER 30.1배 수준이며, 국내 유사업체(코원테크, 에이프로, 하나기술, 피엔티) 평균 PER 13.1배 대비 크게 할증되어 거래 중. 재영택에 전략적 투자를 통한 폐배터리 사이클링 사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음. 2023년 하반기에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인 재영택의 IPO가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예상함.

2차전지 조립공정중 노칭, 스택킹 장비 주력 생산업체로파우치형 주로 생산

2012년 법인 설립과 함께 SK이노베이션에 100ppm 노칭장비 수주. 2018년 수소연료전지 소재 코팅장비 개발. 2019년 헝가리 해외법인 설립. 2020년 각형 R2R 노칭장비 개발 및 양산 시작. 2021년 2월 25일 코스닥 신규상장.

투자포인트

1) 전략적 투자를 통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재영택에 전략적 투자(투자금액 100억원, 지분 약 18%, 2021.10.5)를 통해 2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재영택은 국내 유일 배터리용 고순

도 탄산리튬 양산 추출기술을 보유함. 회수율이 85% 수준으로 글로벌 Top Tier 수준임. 현재 Capa는 블락파우더 원료 투입 기준 연간 1,800톤인데, 2023년 초 양산가동 예정인 신공장을 증설할 경우 연간 6,600톤까지확대 예정임. 2023년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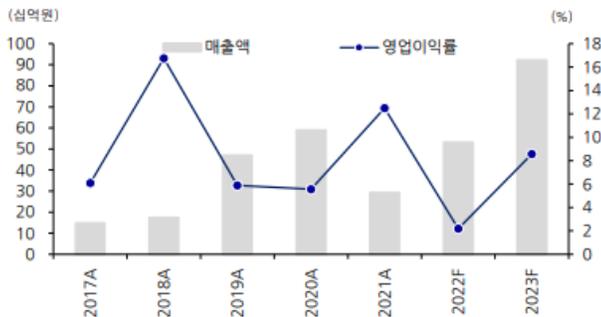
2) 2차전지 전방시장 투자 확대 수혜: SK온의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수주 확대가 예상됨. 특히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임. ① 노칭장비는 업계 최고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차세대 장비를 개발하여 수주 확대는 물론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SK온 매출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고객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3) 수소연료전지 장비 개발 등 사업 다각화 추진: 2018년에 이미 수소연료전지 소재 코팅장비를 개발. 이미 양산라인에 장비를 납품한 바 있음. 현재는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에서 수소차용 장비 시장으로 사업 영역 확대 중임.

결산기(12월)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매출액(십억원)	59.0	29.4	53.3	92.3	119.2	
영업이익(십억원)	7.7	-5.8	1.2	7.9	10.6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5.2	-4.3	9.4	7.5	10.0	
당기순이익(십억원)	4.8	-2.4	7.7	7.0	9.3	
EPS(원)	541	-	221	720	655	874
증감률(%)	-43.9	적전	흑전	-9.0	33.4	
PER(배)	n/a	n/a	27.4	30.1	22.5	
ROE(%)	30.6	-7.1	15.6	12.5	14.6	
PBR(배)	n/a	4.4	4.0	3.5	3.1	
EV/EBITDA(배)	0.5	n/a	133.9	27.1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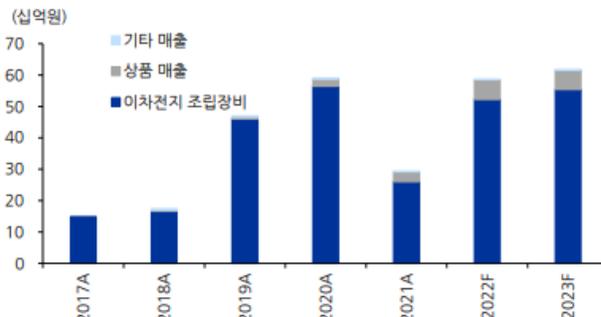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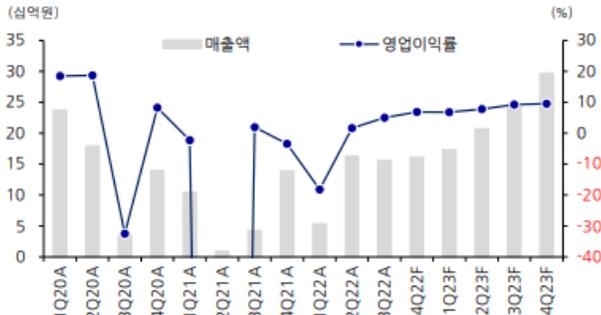
자료: 유일에너지, 유진투자증권

연간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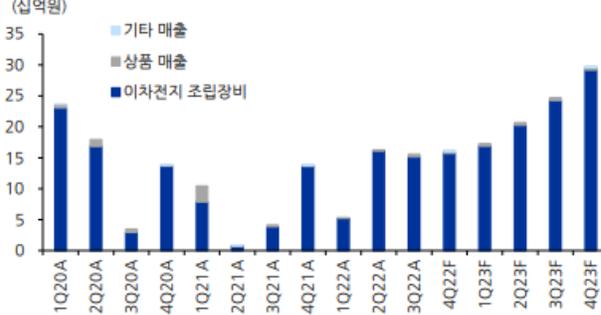
자료: 유일에너지, 유진투자증권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일에너지, 유진투자증권

분기별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일에너지, 유진투자증권



